

요엘서 및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9호

Jeff Pippenger

2026-02-02

제삼십구번

2024년의 외적 알파 기초 시험을 잇는 내적 오메가 마감식 시험은 "창고"와 그 창고에 보관된 "양식"의 정의를 요구한다. 그 시험은 예언적이며, 진리의 내적 선과 외적 선을 가진다. 그 보석들이 제임스 화이트의 남은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냐? 양자 모두이다.

9/11에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책을 먹고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서 그 터가 그때 놓였다. 9/11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곧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방인들이 1,260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바깥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소와 군대는 곧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다.

2023년에는 9/11에 강림하였던 동일한 천사가 다시 강림하여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봉인을 열었고, 이어 2024년에는 로마의 표상이 밀러주의자들에게 그러했듯이 여전히 그 이상을 확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적이고 기초적인 시험이 있었다.

하늘의 "열린 창들"은 성전의 내적 오메가 시험의 도래와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식별한다. 그 시험은 두 가지 상징을 식별할 것을 요구한다. 제삼의 천사가 1844년에 임하였고, 이어 9/11에 다시 임하였을 때, 요한은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따라서 2023년에 성전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는 예언적 사역을 식별하게 된다. 말라기는 무엇이 "창고"이며 무엇이 "양식"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밀러의 꿈에서도 같은 질문은 무엇이 "상자"이며 무엇이 "보석들"인가가 될 것이다.

밀러의 꿈은 하늘의 열린 창들을, 요한계시록 19장의 승리한 교회가 흰 세마포를 입고 만군의 주의 군대의 흰 말들을 타도록 들려 올려지는 지점으로 규정한다. 그 열린 창들은 말라기서의 복이나 저주가 쏟아지는 곳이다. 밀러의 열린 창은 잡동사니가 제거되고 보석들이 보석함에 모아지는 곳이다.

하늘의 창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며, 그 창들이 열렸을 때 사십 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그 창들이 열렸을 때 방주에는 여덟 사람이 있었다. 홍해에서의 세례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된 사십 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였다. 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십 일 동안 광야로 내몰리셨다. 부활하신 후, 그분의 세례로 예표된 바와 같이,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십 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교회가 투쟁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 이행할 때, 삼십 세의 다윗 왕이 사십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승리한 교회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표상된다. 이십이 년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삼십 세였던 선지자는 에스겔이었으며, 그는 하늘이 열렸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였다.

삼십 년째 되는 해 넷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에스겔 1:1.

삼십 세에 요셉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점증하는 위기를 몰고 오는 이슬람의 동풍에 직면하였으며, 그 위기가 바다에 누워 있는 용인 애굽으로 하여금 세계 단일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다.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은 고기를 창고들에 모아 들였다.

2023년 7월, 광야에서 한 음성이 들렸고, 이어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의 봉함을 풀기 시작하였다. 2024년에는 기초적 외부 알파 시험이 두 부류를 분리하였고, 봉함이 풀리는 과정은 계속되었다. 이제 2026년에, 다시금 두 부류를 분리할 성전 내부의 오메가 시험이 도래하였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거룩한 주간은 뜰과 성소에 해당한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미가엘이 일어나실 때까지(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던 그 거룩한 주간의 끝에 그가 그러하셨던 것처럼)는 지성소에 해당한다. 봄 절기들은 그 거룩한 주간에 성취되었으며 절기들의 알파이며, 가을 절기들인 1일의 나팔절과 10일의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의 초막절은 절기들의 오메가이다.

이와 같이 재림과 관련된 예표들도 표상적 예식에서 가리킨 때에 성취되어야 한다. 모세 율법 제도 아래에서 성소의 정결, 곧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에 있었는데(레위기 16:29-34), 그때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이로서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거한 후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와 죄인들을 멸함으로써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을 불멸을 부여하심으로 축복하시리라고 믿었다. 1844년에 10월 22일에 해당한 일곱째 달 열흘, 곧 대속죄일, 성소가 정결케 되는 때가 주의 강림의 때로 여겨졌다. 이는 이미 제시된 바 2300일이 가을에 종결된다는 증거들과 조화를 이루었고, 그 결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기다림과 졸음의 때 뒤에는 신랑의 오심이 이어진다. 이는 앞서 제시된, 예언과 예표에서 나온 논증들과 부합하였다. 그 논증들은 그 진리성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었고, '한밤중의 외침'은 수천 명의 신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해일처럼 그 운동은 온 땅을 휩쓸었다. 성읍에서 성읍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외딴 시골 지역들에까지 퍼져 나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각성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선포 앞에서 광신주의는 떠오르는 태양 앞의 이른 서리처럼 사라졌다. 신자들은 자신의 의심과 혼란이 제거됨을 보았고, 소망과 용기가 그들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하시는 영향 없이 인간적 흥분만이 있을 때 늘 나타나는 그러한 극단들로부터 자유로웠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종들의 책망의 기별 뒤에 뒤따랐던 검비와 여호와께로 돌아옴의 시기들과 그 성격을 같이하였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도취적 환희는 적었고, 오히려 심령의 깊은 성찰과 죄의 자복과 세상을 버림이 있었다. 주를 맞을 준비가 번민하는 심령들의 무거운 부담이었다. 인내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아낌없는 전적 헌신이 있었다. 대쟁투,

400.

봄 절기들은 거룩한 주간에 성취되었고, 이어 오순절에 이른 비, 곧 알파의 비가 부어져 이로써 가을 절기에서의 늦은 비의 부어짐을 예표하였다. 그 봄 절기들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에 규정되어 있다. 가을 절기들은 23절부터 44절에 규정되어 있다. 2300년을 계산하면 1844년에 이르게 된다. 봄 절기에 22절, 가을 절기에 22절. 23장에는 22절씩 두 구간이 있다.

나팔절은 열흘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였고, 초막절은 속죄일에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그 절기 후의 안식일과 여덟째 날은 땅의 천년기적 안식을 표상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8

첫째 천사는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였고, 그 예언적 차원에서 볼 때 다니엘의 '마지막 때'였던 1798년은 나팔절의 성취이다. 그러나 1840년 8월 11일에 1798년의 첫째 천사의 봉인이 풀린 기별은 둘째 화 예언의 성취로 권능을 부여받았다. 이슬람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절의 경고의 일부이다.

보려는 자들에게는, 가을 절기인 나팔절과 초막절이 그 가운데 심판을 두고 알파와 오메가의 절기를 표상한다. 이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3이라는 수는 속죄의 상징이다. 첫 절기가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있고 마지막 절기가 이십이일에 끝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나팔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에 해당하고, 속죄일은 그 가운데 글자에 해당하며, 초막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는 '진리의 틀' 안에 배치된 스물두 절이다. 그 가운데 있는 열째 날은 시험을 가리키니, 열은 시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속죄일은 잃어버린 자들의 반역이 기록되고 해결되는 날이며, 그 반역은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표상된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는 열세 번째이고, 그것은 일곱째 달 열흘과 상응하며, 이정표로서 히브리 알파벳과 그 특정한 날의 예언적 속성을 지닌다. 10과 13의 합은 23이다. 칠십은 10과 7을 곱한 값이며, 일곱째 달 열흘도 칠십에 해당하니, 칠십은 은혜 기간의 종결을 상징한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여야 하오리이까? 일곱 번까지이니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니라." 마태복음 18:21, 22.

사백구십 년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할당되었다. 그 연한은 이천삼백 년에서 떼어 내어 칠십 이레로 표상되었으며, 이에 예수께서는 다니엘서 9장의 '칠십' 이레로 표상된 사백구십 년이 유예 기간의 한계임을 밝히셨다.

칠십 이레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속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다니엘 9:24.

구약성경에서 "cut off"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이 절에서만 사용되며, 그 의미는 "결정되다" 혹은 "작정되다"이다. 이는 보통 "cut off"로 번역될 때 쓰이는 단어와는 다른데, 후자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의 첫 단계에서 아브람이 제물을 둘로 쪼갰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백구십 년의 유예 기간이 "결정되고" "작정되었으며",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끊어지게 될 것이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cut off"가 있다. 하나는 더 큰 수에서 칠십이라는 수만큼 "떼어 내어진" 유예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엘의 "새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질" 때 유예가 종결되는 경우이다. 칠십은 유예의 종결을 상징한다.

가을 절기들은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세 단계를 지니고 있다. 가을 절기들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시작하며, 대속죄일의 중간 이정표는 열째 날과 열세 번째 문자이며, 곧 23이 되고, 초막절은 스물두째 날에 끝나며, 이어 그 절기를 따르는 큰 안식일이 있고, 그 본문은 23장 44절에서 끝난다.

레위기는 레위계 제사장직을 의미한다. 봄 절기들은 레위기 23장 1-22절에 제시되고, 이어 가을 절기들은 23장 23-44절에 제시된다. 봄 절기는 스물두 절로 제시되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이다. 가을 절기도 또한 스물두 절로 설정되어 있다. 나팔절은 속죄일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그 다음 초막절은 칠일 동안 지속되며, 일곱째 달 스물두째 날에 끝난다. 그 칠 일 중 첫째 날은 의례적 안식일이었고, 칠 일 절기 다음 날인 여덟째 날도 그러하였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여덟째 날을 일곱에 속한 여덟의 상징으로 만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지킬 초막절이 될지니라. 첫째 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칠 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불로 드리는 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 불로 드리는 제물을 드릴지니라. 이는 엄숙한 대회니라. 너희는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 또한 일곱째 달 열닷새 날에,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일 때에,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첫째 날도 안식일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레위기 23:34-36, 39.

여덟째 날의 의례적 안식일은 초막절을 뒤따르는 천년기의 안식일을 상징한다. 고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랑한 것은 초막절 기간에 초막에 거함으로 기념되며, 이는 늦은 비의 부어 주심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하여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산악지대로 이끌어 간 야곱의 환난 때도 상징한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모두 성읍과 촌락을 떠나 도망하였으나, 악인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 올렸으나, 칼은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떨어졌다. 그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간구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해가 떠오르고 달은 멈추어 섰다. 시내들이 흐르기를 그쳤다. 짙고 무거운 구름들이 몰려와 서로 부딪쳤다. 그러나 한 곳에 맑고 고요히 머무는 영광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하늘은 열렸다 닫히며 크게 요동하였다.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어졌고, 사방으로 거친 바위덩이들을 내던졌다. 바다는 솔처럼 끓어 돌들을 육지에 쏟아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심의 그 날과 그 때를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실 때, 그분은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온 땅을 두루 굴러가는 동안 잠시 멈추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눈을 위로 고정한 채 서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 가장 큰 우렛소리처럼 온 땅을 두루 굴러가는 말씀을 들었다. 실로 두렵도록 엄숙하였다. 매 문장의 끝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영광으로 광채를 발하였다. 악인들은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존귀케 한 자들에게 끝이 없는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짐승과 그의 형상을 이긴 승리의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땅이 안식하여야 할 희년이 시작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51년 7월 21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며 땅은 일천 년 동안 안식하는데, 이는 땅의 안식년과 희년에 의해 예표된 바이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사람을 위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본 장의 도입부로 규정되며, 이 장은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것으로 끝나고, 이는 땅이 안식하는 안식년을 표상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에 관하여, 곧 이것들이 나의 절기니라. 옛새 동안은 일이 행하여질 것이나, 일곱째 날은 완전한 안식의 안식일, 거룩한 성회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 모든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1-3.

제23장의 알파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며, 그 장의 오메가는 땅이 비어 있는 천 년으로서, 이는 땅을 위한 일곱째 해의 안식년과 희년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그 장의 알파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시작하여 22절에서 끝나는 봄 절기이고, 반면 그 장의 오메가는 일곱째 달 이십이일에 끝나며, 그 뒤에 땅의 일곱째 해의 안식년을 표상하는 여덟째 날의 의식적 안식일이 이어진다.

1절부터 22절은 성소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고, 23절부터 44절은 지성소에서의 그의 사역을 표상한다. 레위기는 제사장직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표상한다. 일곱째 날의 알파 안식일은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고, 오메가의 일곱째 해의 안식은 새롭게 된 땅에까지 이른다. 레위기 23장은 역사적으로 창조에서 재창조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한다.

예언적 기별의 기쁨이나 수치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 혹은 그 모조품을 소유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진리가 서사에 반영되기 전에는 수치를 초래하는 쟁점이 간과된다.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 기쁨은 죄가 제거된 자들로 표상되며, 그들은 장막절을 기뻐하며 지키는 자들로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찬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dwelt'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를 뜻한다. 예수께서는 육신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그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장막, 우리의 천막, 우리의 초막, 우리의 육체를 취하셨다. 베드로는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노니, 이는 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13, 14.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알거니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는 이 장막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리하여 우리가 입었을 때에 별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나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라.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4.

장막절은 14만 4천의 인침을 표상하며, 이는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성취된다. 14만 4천의 죄가 제거될 때, 성령께서 승리하는 교회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실 것이다. 14만 4천에 대한 심판이 마쳐지고, 인침받은 자들은 장막절로 표상된 바와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을 선포한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요 장막, 곧 성막이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그들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경축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고, 마지막의 장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함으로 지켜졌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처음으로써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니, 모세가 그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이는 그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으로 여김을 받으셨음이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큰 존귀를 얻음과 같음이라. 모든 집은 어떤 이가 지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또한 모세는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하여 그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참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써 그의 집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곧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1-6.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데 사용하신 신실한 종이었으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그리스도는 종 모세보다 더 큰 존귀를 지니신다.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헤롯이 사십육 년에 걸쳐 개축한 성전, 46개의 염색체를 지닌 인간이라는 성전, 그리고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성전의 다양한 현현이 이어지는 예언의 선상에서, 그 시작은 에덴동산에 있고, 죄 이후에는 동산의 문에서, 홍수 뒤에는 모세에 이르기까지 제단에서 드러났으며, 그 세 가지 주요 이정표는 모세, 그리스도, 그리고 십사만 사천이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알파와 오메가를 대표하며, 둘은 함께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대표하는데, 이는 십사만 사천으로도 상징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셋째 천사가 도래할 때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그 동일한 천사가 9/11에 도래했을 때에도 요한은 다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그는 1,260일의 뜰을 측량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2023년에 그 동일한 천사가 도래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1,260일, 곧 삼 일 반은 2023년에 끝났고, 그 시점부터 일요일 법령 직전까지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2024년에는 기초가 놓였고, 그 해에는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한' 집단으로 나타난 반역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에 대한 밀러의 식별에 반대하였다.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손이 또한 이를 마치리라. 그리하면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들이 기뻐하며 그 일곱과 함께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리니, 그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니라. 스가랴 4:8-10.

이상을 확립하는 자가 로마라고 한 밀러의 식별을 거부하는 것은 곧 기초들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일이다. 밀러라이트 운동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알파 운동이었고, 십사만 사천의 운동은 셋째 천사의 오메가 운동이다. 그 운동은 알파보다 스물두 배 더 강력하다. 이와 같은 예언적 의미에서 밀러라이트 운동의 기초는 '작은 일의 날'이다. 하박국의 두 판에 제시된 어떤 기초적 진리라도 멸시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는 다니엘 11장 14절에 확립된 그 이상이 솔로몬이 지적한 동일한 이상이기 때문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머릿돌의 이상은 경이롭다. 이는 기초의 모퉁잇돌이 또한 머릿돌임을 밝히되, 그 능력이 스물두 배 더 크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2024년의 알파 기초 시험은 외적이며 지적인 인침의 메시지이고, 2026년의 오메가 성전 시험은 내적이며 영적인 인침의 메시지이다. 하나는 짐승의 형상과 표를 식별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표를 식별한다. 그 오메가 내적 시험은 말세의 사건들의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밀러의 꿈의 두 상징으로 표상된다. 참고는 무엇인가? 또 양식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대개 수개월에서 일 년에 걸쳐 진행되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단계는 약혼이라 불린 법적 결혼으로, 이 시점에 결혼은 법적으로 성립되지만 신랑과 신부는 여전히 서로 떨어져 지내며, 신랑은 신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동거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의 아내로 불렸다. 이 시기에 저지른 부정은 간음으로 간주되었다.

기다림의 기간은 불확실하였고,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불확실성은 그 비유의 본질적 요소였다.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길게는 일 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 때를 정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므로, 신랑은 자신이 돌아올 정확한 날과 시각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부는 혼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으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도된 것이었고,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일은 지체되었다.

아버지가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너라”라고 말하면, 신랑은 밤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외치며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땅의 낮 더위는 가혹할 수 있었으므로, 낮의 더위 속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 일은 언제나 밤에 거행되었다. 가로등이 없었고 행렬이 몇 시간씩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횃불과 기름이 필요하였다. 행렬 동안 고대 히브리의 혼인에서 실제로 선포되던 의례적 표현은 “보라, 신랑이 오느니라!”였다.

비유 속의 처녀들(신부의 들러리)은 아무 관련 없는 여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와 함께 기다렸고,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책임이 있었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을 비추기 위해 각자 자신의 기름을 지녀야 했다. 횃불은 빨리 타버렸으므로, 여정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 필수였다. 기름을 공동으로 나누어 쓰는 일은 없었다.

고대의 혼인 행렬과 결혼에서의 지연은 통상적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연은 예상되었고, 잠이 드는 일도 정상적이었다. 구별의 기준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음이 아니라, 준비에 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연을 예상하여 대비하지 않았다. 법적 약혼에서 혼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었으므로, 모두가 잠들곤 했다.

행렬이 신랑의 집에 이르자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은 영구히 닫혔으며 늦게 도착한 이들은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관례였으니, 문이 닫힌 뒤에 나중에 와서 두드리는 자는 그 행렬에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상징적 표현을 고안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평소 자주 그러셨던 것과는 달리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지 않으셨다. 그분의 청중이 이러한 문화적 세부 사항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지목하신 것은 추상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의 동방식 혼인이었다.

세부 사항들은 히브리인의 증언에 의해 완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미슈나(기원후 2세기이지만 기원후 70년 이전 성전 시대의 관습을 보존함)

탈무드(후대에 편찬되었으나, 이전의 관행을 인용함)

요세푸스(1세기 유대인 역사가)

랍비 전통의 혼인 예전과 법적 논의

유대에 대한 그리스-로마 관찰자들

요세푸스는 정연한 ‘혼인 지침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가 전제하는 법적·문화적 세부 사항들은 미슈나와 탈무드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슈나는 핵심 사료이다.

이 비유는 1세기 유대인 청자에게 매우 강렬하게 와 닿았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도착은 통상적이었고, 등과 기름은 자명한 필수품이었으며, 법적 혼인 정혼과 자정 행렬 사이의 지연도 예상된 일이었고, 닫힌 문은 관례였다! 배제된 처녀들은 수치를 당했으며, 예수 시대의 유대인 청중에게는 그 어리석은 처녀가 당한 수치가 전적으로 마땅한 것이었다. 그 의식을 완전히 알고 있던

예수의 청중은 어리석은 처녀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을 것이니, 행렬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은 어느 처녀에게나 그 준비가 절대적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대인 청중에게 너무나 자명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비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으셨다.